

호천 테마 독서

"비밀"



전주호천초등학교 도서관



〈장독대의 비밀〉 김순영 / 계수나무

집안의 장맛을 담당하는 신 철룡은 석이 어母的 장독대만 살펴보지 않았어요. 석이 어母的 심술궂음은 마음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생긴 석이 어母的 심술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는 불평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병든 석이 어母를 지극정성으로 살피는 며느리의 마음에 감동한 철룡은 석이네 장독대에도 맛을 불어줍니다. 맛있게 변한 장독대처럼 며느리와 석이 어母的 사이도 변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야〉 박현주 / 이야기꽃

텔레비전을 보던 동생이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면 좋겠다.”라고 누나에게 말해요. 그러자 누나는 “안 돼.”라고 대답합니다. 동생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을 키우자고 말하지만 누나는 안된다는 대답뿐입니다. 누나에게 머리를 쿡 맞은 동생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요. 그러자 누나는 우는 동생을 달래려 거북이를 키우자고 합니다. 거북이를 생각하며, 동생과 누나는 행복한 상상의 나라로 빠지게 됩니다.



〈췌, 비밀 투표야〉 나탈리 다르장 / 라임

이번 주 일요일은 투표하는 날이에요. 일요일 아침, 주방으로 뛰어간 레아는 실망했어요. 엄마 대신 피피 아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피 아주머니는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기권하겠다고 하셨어요. 레아가 피피 아주머니에게 학교에서 배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자 피피 아주머니가 마음을 바꿨어요! 레아는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피피 아주머니와 함께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열두 띠의 비밀〉 김기정 / 한솔수북

나는 무슨 띠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 해에 맞는 띠를 가지게 됩니다. “왜 나는 귀여운 토끼띠이고 싶은데 소띠일까요?” “왜 나는 엄마, 아빠랑 띠가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띠는 총 열두 개로, 각 띠가 상징하고 있는 특징은 각각 다를 뿐 아니라 재미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두 띠에 담긴 비밀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